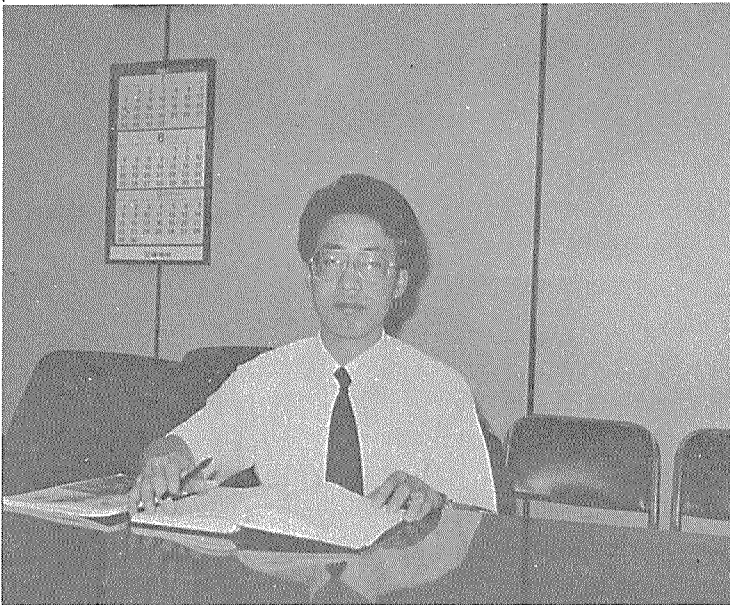


日日新 又日日新하는 신념으로.....

(주)금성사 컴퓨터 마케팅과 이문한



입사년월일 : 90. 4. 22.
 고 향 : 충남 강경
 가족관계 : 4남 2녀
 생활신조 : 日日新 又日日新
 취미·특기 : 테니스
 배우자조건 : 참되고 진실된 여자
 감명깊게 본 영화 : Mission
 결혼이란 :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만남
 키 : 174cm, 허리 32인치,
 발 : 265mm
 시력좌우 : 1.5, 나이 29세

(주)금성사 컴퓨터마케팅과 소속, 요즈음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책임있는 직장인으로 업무에 눈코뜰새가 없는 이 모든것이 이문한씨를 구성하고 있는 외적·내적 요소들이다.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금성의 첨단기술로 완성된 Miracle Super Micro Compute

r는 고성능 32bit Computer로서 일반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사무자동화, 연구개발, 공학, 교육, 의료 등 각종 분야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다기능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며 자사의 기술로 완성된 제품을 자랑하는 이문한씨.

평소 업무를 자사제품의 홍보, 광고업무를 주로 맡고 있

으며 앞으로 국내 컴퓨터 보급에 대한 마케팅 측면의 조사사업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문한씨는 나름대로 홍보 전략을 펴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욕구의 충족, 제조부문의 성과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라

고 한다.

목적달성은 물론 현명한 소비자를 위해 좋은 상품의 정보제공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때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자기성찰과 책임감 그리고 하루하루의 반성이라는 이문한씨는 「日日新 又日新」하는 신념으로 금성사의 보통사람이 되기를 노력한다고 한다.

남달리 일에 대한 신념이 강한 이문한씨는 「일과 직장」을 “단순히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일이라는 것은 땀흘림이 인간의 운명적 삶 자체이고 정신적 만족과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면서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니 만큼 보람과 가치의 터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삶에 대하여 일성을 터뜨린다.

그런 의미에서 「땀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금성인이다.

업무, 스트레스, 술에 찌들어 한주일을 보내는게 셀러리맨들의 일상인데 반해 그는 황금같은 휴일을 방바닥과 씨름하며 보낼 수는 없다며 진정한 휴일은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데 있다는 주말론을 펼치고 있다. 주말에는 주로 테니스를 즐기는 그는 대학시절 씨클에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배우게 된 테니스가 지금은 그의 취미이자 특기가

되어 버렸다고 한다. “우리네 남자들은 휴일을 잘못 즐기는 것 같아요. 자기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 반면 막상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여가시간도 알차게 챙기는 면모를 보인다.

이문한씨는 29살 총각. 아직 미혼이다. “요즈음 여성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좀더 진실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여성론을 피력한다. 한마디로 여성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생각이다. 한편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대학시절 미팅에서 만난 아가씨인데 언제나 밝고 명랑한 친구였다고 그 친구의 해맑은 미소가 좋았는데 어떠한 계기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되지만 아타깝게도 동성동본이었던 것이 헤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 군대제대다, 취업준비, 직장생활에 여념이 없다 보니깐 어느샌가 그일은 과거로 지나가 묻혀 버렸다고 한다. 그래도 한직할때면 넉넉한 여유로 추억을 되새겨 보고 풋풋한 그때의 그시절에 젖어도 본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 외국어 공부에도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외국어 공부는 잠시라도 고

삐를 늦추면 곧 실력이 떨어지게 돼서 꾸준히 외국어를 보고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나름의 비결을 알려준다.

또한 한계에 부딪칠 때가 있는데 스스로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극복하지 못할 때에는 항상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아울러 해 준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시각도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부당한 방법으로 때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 사회를 불공정한 사회라며 그 나름대로의 사회상도 펼쳐보였다.

사람들은 또 누구나 사람들의 무리에 섞이어서 지내고 싶어하고 있지만 특별히 남보다 두드러지는 것도 뒤지기도 싫다고 그저 남만큼 지내는 것이 꿈이고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같이 일하는 마켓팅과 동료들도 성실한 사람으로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호흡도 잘 맞아 사내에서도 최고의 팀워크로 알려져 있다고 살짝 귀땀 해주기도 했다.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생활을 해 갈려면 시종일관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지한 자세와 책임을 질 줄 아는 참된 용기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이문한씨의 소망들이 열매를 맺길 기대해 본다.